

불자 세상보기

젊은이 취업문제, 사회구조적 접근필요



방영준
성신대 명예교수

지난 9월 24일 부산에서 황당하면서도 서글픈 사건이 있었다. 새벽 2시경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여성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3개 경찰서에서 70여 명이 3시간 가까이 수색을 했다. 뒤늦게 네 명의 여자 등산객을 탐문하여 확인한 바, 이들 중 한 여자가 "하느님, 취업 좀 되게 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외친 것이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살려 주세요"라는 외침을 듣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사건을 종결하면서 한 경찰은 "기도가 좀 지나쳤다"고 하면서도 매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황령산의 살려 주세요'는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가 극적으로 표상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스스로를 3포 세대, 5포 세대, 다 포기한다는 다포 세대 등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사실 취업 못한 청년들은 추석 때 고향가기를 포기하고 연휴기간에 개설된 취업 특강을 듣거나 노량진 주변 카페에서 서성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또한 추석 연휴 중 취업 잔소리를 한다고 아버지를 칼로 상해한 사건도 보도된다. 오호라. 이를 어찌 할 터인가?

이들 청년들은 자신이 사는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 표현하고 있다. 지옥을 의미하는 'hell'에다 봉건사회 '조선'을 합성한 것이다. 또한 '개한민국'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 속에는 젊은이의 분노와 좌절이 짙게 배어 있다.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나온 부유층은 단군 이래 최대의 태평성대를 보내지만 흙수저를 물고 나온 계층은 희망 없는 유민이 되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는 나 같은 기성세대는 한결 불편해진다.

해방과 6.25 전쟁 통에 태어난 세대들 중에는 한 끼의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까, 오늘의 잠자리는 어딜까를 걱정하면서 고학을 하여 자기 성취를 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되었고 한국을 경제 선진국(?)에 올려놓은 머슴의 역할을 하였다.

나 같은 층이 옛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젊은이에게 충고를 한다면 곧 '노력'의 부류에 속할 위험이 많다. '노력'은 별래의 일종인데 노력하라는 충고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젊은이를 위한다는 책도 유행처럼 출판되었는데, 이제는

한 취준생의 "살려달라" 비명
한국사회 현 세태 보여줘 '썸씽'
청년 개인 문제 치부해선 안돼
돈·경쟁 벗어난 사회 만들어야

'아프니까 청춘' 식의 이야기에 식상해 버렸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에 가슴앓이 하면서 나는 병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모 두가나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동안 경쟁적 생존적 삶의 가치가 매몰되어 살아 왔고 우리의 교육제도도 이를 뒷받침해 온 교육이 아니었는가.

정신적 가치의 몰화현상에 빠져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배급주의에 눈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 사회는 계층 양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내가 살았던 시대는 지진의 시대였고 지금의 젊은이는 견고한 화폐의 콘크리트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춘들은 꿈을 잃고 비전을 상실했다. 한 마디로 기(氣)가 빠진 것이다. 기가 빠지면 사는데 백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는 참나적 쾌락주의를 만연시킬 위험도 매우 많다.

이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개인의 가치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 즉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신명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은 어떤 삶이고 이러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돈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는 과연 무엇인가? 붓다의 자비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사회제도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독서하고 있는 분야도 여기에 있는데 머리가 어지럽다.

발언대
군중교구 10주년에 바란다

조계종 군중교구가 2005년 7월 25일 창립된 이후 9월 28일 일면 스님의 교구장 취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지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3기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군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중교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법요집·합장주 등 지원 절실해



유선재
대불연 군포교 지원담당

군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장병들을 어떻게 감독시킬 수 있을까이다. 군포교 현안에는 노후법당 보수, 군장병 참석인원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법요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군법당에서 오래된 법요집을 쓰고 있다. 낡은 책자로 인한 문제는 그 내용이 고리타분하다는데 있다. 장병들이 알아 볼 수 없는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병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어떤 법당에서는 부족한 법요집으로 인해 인근 사찰에서 공수한 법요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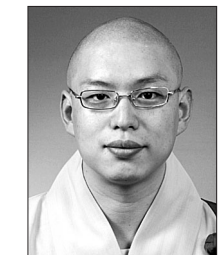
대안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군법요집이 있다. 종이의 질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책의 구성과 내용 또한 현재 진행되는 법회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국방부 예산 편성이 매우 부족하다. 필요한 부수만큼 발간하고 있지 못하다. 종단 차원에서 군포교를 위해 정부 측에 법요집 보급을 요청했으면 한다.

두 번 째는 일반 군법사와 민간 포교사 마다 법회 진행 순서가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이런 부분도 협의를 통해 일치시켰으면 한다. 일선 군법사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어 많은 장병들이 신입법사로 인한 혼동이 있다. 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장병들이 신심고취와 심리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합장주를 배부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제작시 1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군에서 제작하면 200원 가량에 살 수 있다. 군중교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많은 병사들이 합장주를 소지하고 군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먹을 것 보다, 불교콘텐츠가 중요하다



여정강건욱
군승행사

포교현장에서는 장병들이 외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자료가 필요하다. 이제 군포교 현장에서는 장병들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시대다. 요즘 많은 불자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군법당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을 것으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예전보다 힘들다.

많은 병사들이 군대에서 1년 6개월 이상 법당을 접한다. 그 시간 동안 단순히 불교와 인연을 맺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 사회에서 독실한 불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의 콘텐츠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책자보다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청각 자료의 경우 법당 상황상 활용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프로젝트 등 조금만 관리를 못한다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요집과 책부터 재미있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장병들이 편안히 찾아와 책을 보며 불심을 다지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군포교 또한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자, 즉 병사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000명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군법당은 교리 위주 공간이 아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제 장병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 군포교 성세가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社說

비구니회장 선거 공명하게 치루자

오는 10월 12일 이뤄지는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 선출이 선거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10월 1일 현재 등록 접수를 마친 후보자는 자민 스님(천안 연대선원)과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으로 각각 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았다.

차기 회장 후보로 나온 자민 스님과 육문 스님 모두 비구니계에서 명망이 높은 스님들이다. 자민 스님은 오랜 기간 제방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했고 대중 포교, 사회 사업, 종단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육문 스님은 10년간 비구니 선림회 회장 소임을 맡았고, 현재는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이사로서 있으면서 후학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어떤 스님이 회장이 되어도 흠결이 없는 인물이다.

아직 10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단일화돼 추대 형식으로 총회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전국비구니회 장 선거가 여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국비구니회 회칙에는 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명시됐고 구체적인 절차는 나와있지 않다. 선거인단 구성도 문제다. 선거인단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으니 어느 선거지 선거인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 승려증을 가진 모든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6000명에 이르는 선거인명부를 어떻게 만들지도 관건이다.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가 전국비구니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계종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제 선거가 시작된다. 청정성의 보루인 비구니 승가마저 혼탁 선거로 명멸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미 전국비구니회는 16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질적문제로 인해 지난 1년여 간 겪은 내용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양분된 전국비구니회를 화합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원력있는 스님이 11대 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것을 전국 비구니 스님들은 인식해야 한다.

풀뿌리 신도조직 활성화 기대한다

조계종 신도네트워크 전국회의 핵심사업인 교구신도회 창립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희망드림 대장정'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진행해 온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연내 전국에서 교구신도회를 구축하고 향후 SNS를 통한 운영 활성화에도 나선다고 한다.

현재 24개 교구본사 중 교구신도회 창립은 신홍사, 마곡사, 해인사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됐다. 신홍사의 경우 오는 10월 13일 교구신도회를 발족한다고 하니 사실상 2곳만이 남은 셈이다.

그동안 조계종은 중앙신도회와 본말사 신도회가 있었지만 중간 연결고리인 교구신도회가 부재해 지역 및 사회 활동의 응집력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중앙신도회는 교구신도회를 통한 전국 조직의 신도회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실제 성과도 있었다. 공익모금운동 행복바라미 사업의 경우 교구신도회 차원으로 활동을 전개한 3년차 사업이 1, 2년차에 비해 60% 이상 모금액이 늘었다. 이는 교구신도회 창립 이후 중앙단위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구신도회는 사찰신도회를 근간으로 하기에 사찰신도회 활성화가 결국 교구신도회 활성화로 직결된다. 승가와 재가 모두 중도의 묘를 통해 출재가의 조직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신도회는 전국 교구본사 순회를 통해 개신사찰을 청취해 향후 교구신도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불교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홍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썩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썩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썩양초 선물세트 6P

그윽음 가득한 여제 그랑!!

약썩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구성: 6개 ·가액: 30,000원
·크기: 높이 18cm × 지름 6cm

밀납초 선물세트 6P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구성: 6개 ·가액: 30,000원
·크기: 높이 18cm ×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